



보도	2026.6.24.(수) 10:00	배포	2026.6.23.(화)
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	책임자	국 장 박시문 (02-3145-7580)
		담당자	팀 장 김용진 (02-3145-7602) 팀 장 박세혁 (02-3145-7590)
	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	책임자	본부장 천성대 (02-2003-9013)
		담당자	팀 장 추승완 (02-2003-9111)
	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	책임자	본부장 정형규 (02-2003-9014)
		담당자	부 장 하영훈 (02-2003-9370)

##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사 CRO 간담회 개최

### I 간담회 개요

- '26.6.24.(수)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증권사 CRO 등과 간담회를 개최
  -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
  -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에 시장 상황을 고려한 리스크관리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 강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음

#### 증권사 리스크관리 강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요

- ☑ 일시/장소 : '26.6.24.(수) 10:00~11:00,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
- ☑ 주요 참석자
  - (금융감독원)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, 자본시장감독국장 등
  - (금융투자협회) 증권선물본부장, 자율규제본부장
  - (증권업계) 국내 증권사(10社) 리스크담당 임원(CRO)

## II 주요 논의내용

### 1 신용용자·미수거래 관련 리스크관리 및 투자자 보호 강화

□ 첫째,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증권사가 기계적인 리스크관리에서 탈피하여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것을 주문

○ **(신용용자)** 최근 신용용자 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장 전반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,

- 형식적인 신용공여 한도 운영에 그치지 않고 탄력적·선제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운영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,

-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

※ 신용용자 일평균 잔고 추이 : [25년] 20.9조원 → [26.1월] 28.8조원 → [26.2월] 31.5조원 → [26.3월] 32.9조원 → [26.4월] 34.0조원 → [26.5월] 36.3조원

○ **(미수거래)** 시장변동성 확대로 미수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위험관리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

- 미수거래는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과도한 투기수요를 유발하고 증권사 건전성 부담도 가중할 수 있는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

- 또한 미수금 미상환에 따른 채권 부실화 및 시장 전반의 리스크 확산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,

- 투자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수거래가 발생하거나 이를 사실상 유도하는 영업관행은 자제할 것을 당부

※ 미수금 일평균 잔고 추이 : [25년] 0.9조원 → [26.1월] 1.0조원 → [26.2월] 1.1조원 → [26.3월] 1.2조원 → [26.4월] 1.1조원 → [26.5월] 1.4조원

- 둘째, 투자자가 신용융자·미수거래 구조 및 반대매매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자 위험 안내를 강화할 것을 주문
  - 반대매매 발생요건, 손실가능범위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제공하여 투자자의 위험인식 제고를 도모할 것을 당부

**【 신용융자·미수거래 일평균 반대매매 추이 】**

구 분		'25년	'26년				
			1월	2월	3월	4월	5월
반대매매 (억원)	신용융자	40.3	26.9	36.0	85.7	41.5	76.0
	미수거래	59.9	89.9	115.1	200.7	100.2	297.6
	<b>소계</b>	<b>100.2</b>	<b>116.8</b>	<b>151.1</b>	<b>286.4</b>	<b>141.7</b>	<b>373.6</b>
거래대금(조원)		19.9	42.0	46.1	43.9	43.6	65.8

※ 출처 : 주요 10개 증권사

- 셋째, 투자자가 신용융자·미수거래 관련하여 약관·설명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
  -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, 투자자가 거래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,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설명을 통해 설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

※ 투자자에게 직관적인 설명 중심의 약관을 제공하거나 시각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형식적 설명에 그치지않고 위험에 대한 이해도와 전달력을 제고

**참고 신용융자 등 관련 증권사의 투자자 위험 안내 예시**

- ① 신용거래설명서에서 위험고지·유의사항 관련 내용에 대해 색상을 활용하거나, 65세 이상 고객에게는 투자위험 관련 추가확인서 징구
- ②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반대매매 시뮬레이션 결과를 사전에 제공하여 투자자가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
- ③ SMS·알림톡·인앱(In-App) 메시지를 통해 미수금 미납시 처리기준, 반대매매 절차 및 유의사항 등 적시 고지

- 첫째,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주가, 금리, 환율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증권사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
- 최근 주식 거래규모가 증가\*하여 결제 유동성 확보 목적 등의 단기유동성 조달 수요가 빠르게 확대
    - \* 주식 일별 거래금액(조원) : 19.6('23년중) → 19.1('24년중) → 26.2('25년중) → 66.6('26.1분기중)
    - 증권사 자체적으로 단기조달 규모 및 만기분포 등을 점검하고 비상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
  - 헤지수단 마련 등을 통해 금리인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내외 PF 부실사업장 조기상각 등을 통해 손실흡수 능력 확충
  - 외화 자산·부채 가치의 급격한 변동 및 ELS 마진콜 규모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외화 유동성의 체계적 관리 강화
    - 고난도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상품 구조 및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판매절차 관리 강화를 당부
    - 아울러, 증권사의 외화 RP 매도 규모 확대 등에 따른 외환·유동성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요청
- 둘째, 증권사 건전성·유동성 제고 차원에서 ① 부동산 건전성 제도 개선\*, ② 유동성 규제체계 개편안\*\*이 시행될 예정이며,
- \*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규제 도입, 부동산 투자금액에 대한 사업장별 진행 단계(브릿지론·본PF·Non-PF) 및 LTV 수준에 따른 NCR 위험값 산정기준 마련 등 (☞ 제도 개선 사전예고 완료)
  - \*\* 유동성 규제 준수 의무를 쏠 증권사로 확대, 채무보증 리스크 및 시장성 자산에 할인율을 반영한 新조정유동성 비율 도입 등 (☞ 사전예고 진행중)

- 법규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등 회사 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
  - 제도 도입 이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리스크 부서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한도 관리 노력을 당부

### < 증권업계 의견 >

- 증권사 CRO들은 규정에 근거한 기계적인 리스크관리를 넘어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며
  - 형식적인 투자자 안내가 아닌 실효성 중심의 투자자 안내를 기반으로 한 투자자 보호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
  - 또한,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에도 힘쓸 것을 약속

## III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 및 반대매매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
  - 신용융자·미수거래 관련 증권사 리스크관리 및 투자자 보호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시 대응
- 또한,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손실흡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건전성·유동성 관리를 유도할 계획

**① 투자자는 반대매매 안내 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.**

- 투자자는 신용융자 등 약정 체결 시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반대매매 사전통지를 받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
  - 특히, 담보부족금액 추가 납입 관련 안내 및 반대매매 실행 예정 안내 등을 확인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

**② 투자자는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.**

- 투자자는 담보유지비율 하회 등으로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투자할 필요
  - 증권사는 담보부족금액 회수를 위해 전일 종가에서 일정 비율 할인된 가격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하고 투자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
  - 특히, 고령투자자 및 투자경험이 적은 신규투자자의 경우 반대매매 등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각별한 유의가 요구됨

**③ 투자자는 신용·미수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.**

- 투자자는 레버리지 투자 전 신용거래약관·설명서 및 미수거래 유의사항을 꼭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
  - 신용융자 미상환시 담보증권이 임의처분되며, 연체금액이 잔존할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 등 발생 가능
  - 미수금 발생 시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어 다음 매매거래일 부터 30일간 미수거래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% 징수